

나주 혁신도시 재택근무자 2만3천명...1년 새 3832배 ↑

이전기관 13곳 총 직원 4만3678명의 52.6% 코로나에 재택근무
한전 1만2760명·한국농어촌공사 3390명...전국 상위 10위권
올해 1분기도 1만7000명...한전 '디지털 워크 플레이스' 구축도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 문화가 확산하면서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기관 소속 재택근무 인원이 2만3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13곳의 재택근무 인원은 총 2만298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근무일 기준 5일 이상 재택근무를 한 번이라도 한 인원과 나주 이외 지역본부 인원이 반영됐으며, 중복 재택근무 횟수는 기재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재택근무를 일주일을 하든 한 달을 하든

1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재택근무 횟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재택근무 인원은 이전기관 총 임직원 수 4만3678명에 대해 절반 넘는 비중(52.6%)을 차지했다. 이전기관 직원 2명 중 1명 꼴로 집에서 일했다는 말이다. 지난 2019년 재택근무 인원(6명)과 비교하면 3832배 수준이다. 총 임직원이 2만3000명이 넘는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재택근무 인원이 1만2760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1만4740명)에 이어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8266명), 한국수력원자력(7078명), 국민연금공단(6898명), 근로복지공단(5824명)은 재택근무 인원이 5000명 이상이었다. 한국도로공사(4403명), 한국수자원공사(3532명), 한국농어촌공사(3390명), 한국가스공사(3328명)도 재택근무 인원수 상위 10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나주 혁신도시 기관 가운데 총 임직원 대비 재택근무 인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임직원 881명 중 72.4%에 달하는 638명이 재택근무를 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 71.7%(757명 중 543명), 한국콘텐츠진흥원 64.1%(515명 중 330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3.7%(251명 중 160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3.2%(272명 중 172

명), 한전KDN 62.0%(2901명 중 1798명), 한전 54.5%(2만3409명 중 1만2760명), 농어촌공사 50.2%(6756명 중 3390명), 한국전력거래소 49.3%(513명 중 253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4.8%(549명 중 246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0.4%(89명 중 36명), 한전KPS(주) 39.7%(6619명 중 2631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3%(166명 중 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1~3월) 들어서는 혁신도시 13개 기관에서 총 1만6932명이 재택근무를 했다. 전체 임직원(4만3927명) 가운데 38.5%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한국전력은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워크 플레이스'(Digital Work Place)를 구축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기존 데스크탑 PC를 노트북으로 바꾸거나 무선랜과 스마트폰을 사내전화와 연동해 재택

근무와 출장 중에서도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간단한 업무는 전자우편으로 비대면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면 보고가 필요한 경우는 직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로 보고할 파일을 전송하고 스마트폰, 태블릿을 활용해 종이 출력 없이 보고 및 결재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또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다자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직원 간 회의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과의 비대면 소통 채널을 마련했다. 한전은 디지털 워크 플레이스를 본사 및 사업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면 업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농촌재능나눔 봉사단체·동아리 67곳 선정

활동 경비 일부 지원

올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에서 진행되는 농촌 재능나눔 봉사활동 단체에 광주·전남 8개팀이 포함됐다.

공사는 농촌 재능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할 단체와 대학동아리 등 67곳을 선정, 오는 10월까지 활동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촌 재능나눔 사업은 직능 및 사회단체, 기관, 기업체와 비영리단체, 대학교 봉사동아리 등이 농촌마을에서 전문적인 재능을 나누는 사업이다. 공사가 활동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의 단계별 방역 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비대면이나 비접촉 활동이 가능한 단체를 우선 선정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문 봉사단체인 1004재능기부단과 사랑순회링센터, 조선간호대학교(청라봉사단), 사단법인 생활안전보건연합, (사)광주시곰두리봉사회, (사)장흥군새마을회, (사)광주시사회복지심부름지원센터, 재난안전연합회 등 8곳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활동 단체는 전문 봉사단 35곳, 경운대 별솔동아리 등 동아리 30곳, 서경대, 용인대 등이 선정됐다.

201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811개 단체, 13만여 명의 봉사자가 전국 7000여 개 마을에서 의료, 미용, 교육 등 전문 재능을 나눴다.



지난해 농촌 재능나눔에 참여한 대학생이 이마용 재능나눔활동을 하는 모습. <농어촌공사 제공>

선정된 단체들은 지역공동체와 경제 활성화,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생활환경과 마을환경개선, 주민교육·문화증진 등 4개 분야, 50여 개 세부 활동으로 나뉘어 봉사활동을 한다. 전국 광역 사·도 및 일선 시·군·구에서 봉사활동 대상 마을이 지정되면 단체별로 오는 10월까지 재능나눔을 하게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해에는 69개 단체가 전국 193개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김인식 사장은 "나눔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기"라며 "봉사와 나눔이라는 두 가지의 미를 모두 갖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혁신도시 전력그룹사, 대학생 학점 과정 운영

광주·전남 90명 포함 250명 대상

나주 혁신도시 전력그룹사가 올해 광주·전남 90명을 포함한 전국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학점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

한전KDN은 최근 전력거래소, 한전KPS와 '빛가람 에너지밸리 공동캠퍼스' 공동 주관 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대학생 학점취득 공동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에 전력분야 직무교육을 펼친다. 올해는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한 '빛가람 학점과정'과 전국 단위 '유니온 학점과정'을 통합 운영한다. 전력그룹사들은 각자 장점을 살려 전력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강의를 공동 개설한다. 학기 중에는 온라인 교육을, 방학 기간에는 집학 교육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은 8월2~6일, 기타 지역은 8월9~13일 기관별 각 교육장에서 펼쳐진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집학 교육은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후보자 공모

오는 6월30일까지 추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2021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후보자를 오는 6월30일까지 추천받는다.

이번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은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 총 3개 부문이며 훈장, 대통령표창 등을 비롯해 총 21명에게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먼저 '해외진출유공' 부문은 콘텐츠 수출, 한류 확산 및 기반마련, 국제 문화교류 등 해외 진출을 통한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추천 접수 받는다.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부문은 2020년 3월

26일부터 2021년 3월25일까지 연간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제작, 유통, 수출 등을 통해 방송영상분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가 대상이다.

'게임산업발전유공' 부문은 '게임산업발전', '게임문화진흥' 총 2개 공적분야로 나뉘며, 게임콘텐츠 제작, 유통, 수출 등을 통해 산업발전 또는 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을 추천받는다.

수상자는 전문가 심사, 공적 심사, 자격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시상식은 오는 12월 개최 예정이다.

콘텐츠 대상 후보자 추천과 접수방법은 콘진원 누리집(koCCA.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교육생 모집

참여 교육생 440명...14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2021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이하 창의인재동반사업)'에 참여할 창의인재 교육생 440여 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10년 차를 맞이한 창의인재동반사업은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과 창작역량 개발을 위해 전문가와 예비 창작자 간 멘토링을 토대로 산업계 진출을 도모한다.

올해는 게임, 음악, 공연,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분야 교육을 운영할 플랫폼 기관 총 17개를 선정했다. 이들 플랫폼 기관을 통해 교육생 모집과 콘텐츠 분야별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번에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창작지원금을 월 1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확대 지급한다. 또한 교육생 선발 시 플랫폼 기관당 25% 이상의 지역활동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창작자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이번 멘토링에는 뮤지컬 '팬텀' '그날'의 장소영 음악감독,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태양의 후예'의 강동윤 음악감독 외에도 마마무, 다비치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의 작곡 및 디렉팅을 담당했던 김도훈 프로듀서 등 분야별 정상급 멘토들이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콘진원 누리집 및 한국콘텐츠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똥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